

'진화하는 공룡' 중국농업 현장을 가다

8 中 농산물수출기지 산동성

품종 1만가지... 지구상 모든 채소 재배·수출

개혁·개방 이후 경제가 일취월장하고 있는 중국은 이제 우리에게 '공룡'의 대상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우리 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훨씬 낮은 중국 농산물은 전남 농업, 나아가 한국 농업에 직접적인 위협요소로 등장한 지 오래다.

값싼 중국산 마늘이 수입될 때마다 우리 농민들은 그 매운 맛에 눈물을 흘려야 했다. 이제는 반상용 중국산 쌀까지 국내에 들어와 우리쌀과 섞여 팔리는 바람에 쌀농가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모두 중국이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농산물 수출정책의 여파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자본주의적 요소가 농업에 도입되면서 농산물 생산 및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농업의 국제화를 지향하면서부터 국제 경쟁력이 있는 채소류를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채소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천혜의 기후, 생산량 70% 수출

우리와 지근거리에 있는 중국 최대의 원예농업지역인 산동성(山東省)을 중심으로 재배되는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등 양념채소류와 배추, 당근 등이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무차별적으로 수입되면서 국내산 농산물의 가격파동을 불러왔다. 중국은 향후 정부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제도를 보완하고, 경쟁력을 갖춘 농산물수출전문기업의 규모화와 전문화를 통해 세계 농산물 수출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그 중심에 농산물 생산 환경 및 물류인프라가 정비된 산동성이 농산물 수출의 전진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산동성은 황하 하류지역에 위치하여 수자원이 풍부하고 성 전체면적의 55%가 평야지와 분지로 이뤄져 채소를 비롯한 원예작물과 밀, 옥수수, 면화, 땅콩 등의 주산지로서 이들 농산물 생산량은 중국에서 1~2위를 점유하는 최대 농업지역이다. 또 온난하고 강수량이 적당한 기후 여건상 채소생산 적지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산동성은 채소품종자원이 1만여종에 이르는 세계 3대 채소생산기지에 포함된다.

썩 면적 55%가 평야·재배 최적

이러한 천혜의 기후 및 토양과 유리한 입지조건에 따라 산동성은 생산되는 채소, 과일, 땅콩, 면화 등 농산물의 70%를 중국 내 다른 지역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미국 등 태평양연안국들에 판매하는 농산물



중국은 한국, 일본 등과 거리가 가깝고 채소재배 조건이 뛰어난 산동성을 수출농산물 전진기지로 삼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산동성 각 생산지에서 모아진 수출농산물을 선별 포장하기 위해 하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수입국 눈높이 맞춰 가공·유통·수출까지 '원스톱' 처리

무공해농산품 인증·명품 브랜드화 등 농가공기업 육성

최대 수출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산동성 채소 생산량은 중국 전체의 16%, 시설채소면적은 45%, 채소 수출량은 30%나 차지하고 있다. 산동성은 중국 정부로부터 '채소의 고향', '마늘의 고향', '양파의 고향'으로 명명될 정도로 중국 최대의 채소산지이다. 이를 기반으로 산동성의 주요 채소인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당근, 대파 등 노지 업근채류는 우리나라와 일본 시장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산동성 농산물의 경쟁력은 천혜의 자연여건 뿐만 아니라 철저한 품질관리가 성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에서 무공해 농산품의 통일 표기를 실시하기 이전 성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다양한 무공해농산품 조직 인증을 실시했고, 이를 녹색식품, 유기식품으로 확대했다. 또한 농산물 품질제고의 중요한 수단으로 농산물 명품화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브랜드화 하고 있으며, ISO계열 품질인증을 통하여 농

산물 가공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특히 산동성은 채소생산의 주산지이면서 가공업이 잘 발달돼 있다. 채소가공업은 수출을 위한 가공업으로 '9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증가했고 '2004년 기준 채소가공업이 2천개 이상이며 주로 채소생산지역에 들어서 있다. 또한 축산물, 수산물까지를 포함하면 약 4천200여개의 기업이 수출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산물 가공, 유통, 수출까지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다.

마늘 2만t 저장능력 기업 '수두룩'

이들 농수산물 가공기업은 한국, 일본, 미국 등 채소 수입국의 까다로운 선별, 포장, 선도유지, 품질 등을 충족하기 위해 주로 수입국의 상인들에 의해 가공 시설 설치 및 가공기술이 전수되거나 직접 또는 합작

투자에 의해 설치되기 시작하면서 급증했다. 현재 연간 수출액이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이 12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안구시의 경우 442개의 채소가공업이 밀집해 있어 채소가공수출을 위한 규모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마늘의 주산지인 금향현 '루화집단'(樓花集團)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이 기업은 면화공장, 고추, 마늘 등을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대규모 기업으로 마늘의 경우 저장능력이 2만t에 이르며 이 중 연간 3천~4천t을 수출하고 있다. 한국에 주로 수출하는 품목은 면실, 고추, 마늘 등이며 전체 종업원이 500명 정도이고, 고추는 냉동고추, 마늘은 깬마늘을 냉동처리하여 수출되고 있는데 금향현에는 이러한 규모의 기업이 37개나 된다. 이처럼 한국과 가장 가까운 산동성은 중국농산물 수출의 중심으로 우리 농산물 시장 공략의 전진기지로 육성돼 있다.



글 조 창 완

<경제학박사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cwcho@gjdi.re.kr>

■ 中 농산물 수출 시스템은

수입국에서 상표 등록 농산물 경쟁력 극대화

중국의 농산물 수출은 국가로부터 허가 받은 농산물수출전문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때문에 기업의 책임하에 생산에서부터 유통, 수출까지 철저한 품질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수출전문기업은 수출농산물에 대해 대부분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재배 농산물의 품질을 통일시키고 있으며,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산지에서부터 선별, 포장하고 있다. 이외 일반 농산물은 중국 최대의 도매시장인 '수광도매시장'을 통해 경매되고 있으며, 청도향, 연태향, 위해향을 통해 수출되고 있다.

가공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농산물 수출 시스템은 수출농산물의 시장경쟁력을 크게 강화시키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농산물 가격을 무기로 시장경쟁을 논리로 무장한 기업의 철저한 품질관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가공수출기업은 수입국에서 상표등록까지 마쳐 국제 규격에 따라 수출하는 경험과 방법을 따르고 있으며, 이를 다른 유사 기업에게도 그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농가와 계약재배 농산물 품질 통일

산지에서 선별·포장 물류비용 절감

중국의 수출 농산물 중 원예 및 축산물의 수출증가가 현저한데 이는 식량확보 정책에서 경제작물 중심의 적지적작(適地適作) 정책으로 정책 기조 전환함에 따라 원예작물 및 축산물의 생산량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특히 일본과 한국을 채소의 주요 수출국으로 삼고 수출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심지어 수출채소에 대한 품질표준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향후 수출국에 적합한 품질을 생산·수출하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수출채소를 수입국의 요구에 따라 재배하고 있고 품종도 입을 과감히 추진하는 등 수출대상국의 품질이나 규격에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채소 수출은 국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시장개방이 확대되면 한국, 일본 등으로의 수출이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최대 농산물 도매시장인 수광도매시장의 농산물 경매 모습.

업소용 전문 냉·난방기 대표 브랜드

업소용 냉·난방기 - 쓸수록 돈 버는 센추리

>> 무담보, 무보증 장기분할 구입 가능 <<

- 75% 연료비 절감!
- 무보증 장기일부
- 무연료 냉·난방

1588-8717, 062-266-7641

실시간 원격지원 경비카메라 출시!

출시가 500만 원 이상 할인!!
198,000원 → 128,000원

경제학박사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cwcho@gjdi.re.kr

1588-8717, 062-266-7641